

# 무안 해안관광일주도로 '노을길'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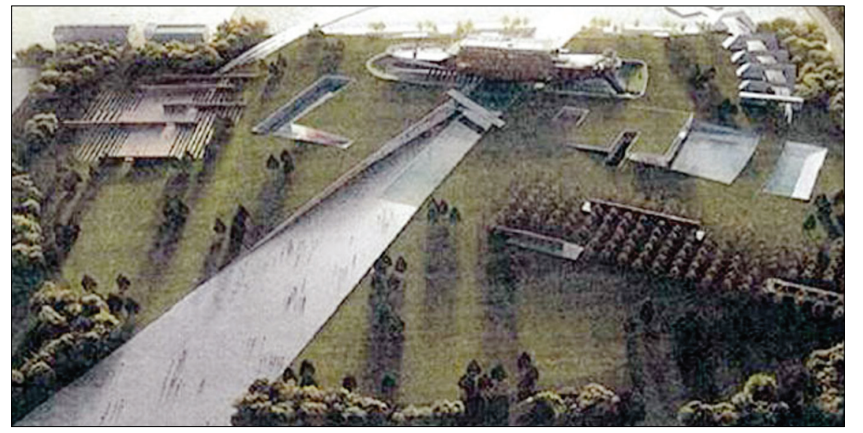
망운 조금나루~현경 봉오제 8.9km 구간  
차도·보도 6km · 보행자 전용도로 3km 등

무안군은 망운면 조금나루에서 현경면 봉오제까지 8.9km 구간의 해안관광일주도로 노을길을 개통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는 차도와 보도 6km, 보행자 전용도로 3km, 주차장 3개소가 설치됐으며, 5년간 국비 154억원이 투입됐다.  
공간별로 만남의 길과 자연행복길, 노을 머뭇길, 느리게 걷는길로

구성돼 있다.  
노을길은 탄도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갯벌, 모래 해안과 송림숲, 노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성된 첫 번째 도로이다. '무안 해안관광일주도로 황토갯길 600리, 느림행복 노을길'을 테마로 하고 있다.  
무안군은 후속 연계사업으로 송림숲을 중심으로 한 노을길 관광

테마공원과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사업이 완료되면 낙지 전망대, 수변데크, 산책로, 가로수길, 공원, 쉼터 등 편의시설과 체험 시설이 설치돼 새로운 해안관광지로써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비대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나홀로 징검다리 쉼터, 가족해수욕장, 나만의 썬지썬, 미니 캠핑장, 사색의 숲, 노을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을길은 공항과 KTX,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

인다"면서 "내년부터는 마라톤 대회, 걷기 축제, E-모빌리티 대회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개통식 행사는 갖지 않았다.  
무안=이기성 기자



세월호 선체 거치 조감도. (사진=목포시 제공)

## '세월호 선체 거치' 목포신항 배후부지·안전체험공원 조성

1500억 투입 2027년 완료...정부서 직접 조성·운영

목포시는 세월호 선체가 거처되는 목포신항 배후부지 일원에 안전교육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단체 선호도조사 및 목포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이달 초 세월호 선체거치 장소로 목포신항 배후부지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세월호를 현재 위치에서 1.3km가량 이동해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선체를 거처하고, 그 일원에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체험 복합관을 함께 건립할 방침이다.  
선체 거치 및 복합관 건립사업에는 국비 1523억원(추정)을 투입

되며, 정부에서 조성하고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세월호 거치 방안으로 선체 원형을 물 위에 띄워 전시하고, 선체의 일부는 내부체험이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안전체험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안전체험 복합관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상안전 교육을 포함한 각종 재난체험이 가능한 생활형 안전복합관으로 조성하고, 그 인근 지역이 자연친화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영암군, 집중호우 피해 한우농가에 조사료 긴급 지원

관내 경영체 기부통해 1천7백만원 상당 140톤 공급



영암군은 지난 25일 군 조사료 경영체 협의회에서 축사와 조사료(곤포 사일리지) 등이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은 국성군 한우농가에 조사료를 긴급 공급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7-8일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조사료가 유실·부패되어 급여하고 있지 못하는 국성군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관내 조사료 경영체로부터 십시일반 곤포 사일리지를 기부받아 1천7백만원 상당의 조사

료 140톤(280롤)을 지원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조사료 경영체 협의회가 함께 하여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를 위로하고 복구를 격려하며 사일리지를 직접 전달하였다.  
아울러, 금호축산영농조합법인(영암군)에서 구례 한우농가에 24톤의 조사료를 기 전달한 바 있으며, 영암축협 한우경영2세에서 또한 48톤의 조사료를 구례축협에 전달한 바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긴급 지원이 한우농가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목포시, 시내버스요금 9월부터 14.25% 인상

목포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9월부터 평균 14.25%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 버스운임 변경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요금인상은 2016년 12월 이후 3년 개월 만이다.  
버스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1350원→1500원, 중고생 1000원→1200원, 초등생 650원→750원으로 인상

되고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종전과 같이 100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코로나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로 운송사의 수입이 급감하고, 연료비 및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버스승강장에 버스 시간을 알려주는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친절, 안전운행 교육 등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영광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최종 보고회

영광군은 지난 24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준성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군의원, 흥농읍 사회단체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및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영광군 흥농읍 진덕리 일원 25ha에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영광 테마식물원의 집객시설을 보완하여 영광 테마식물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자로 나선 용역사

관계자는 영광 테마식물원의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한 산림숲 에코체인 관광 도입과 산림레포츠 시설과 함께 주변 관광시설 및 관광객을 연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형성을 위해 다양한 높이 및 휴게시설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흥농읍 사회단체 협의 회원들은 겨울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집객시설과 기상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마련 등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논의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